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도난 성보 해마다 30여점

● 캠페인을 시작하며

84년부터 15년 동안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모두 316건에 453점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99년 7월 내놓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의 집계다. 84년 이후 매년 30여 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84년 이전에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자료부족으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도난 건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찰 성보현황 파악 안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통사찰 대부분이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뒤집어 말하면 사찰은 범인들에게 가장 좋은 공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문화재를 지키는 데만 몰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통사찰마다 경찰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해 감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사찰이 개별적으로 경비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불교계가 소장한 성보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급 미술품이나 도예품 등 중요 유물들이 '지키는 손' 보다는 '훔치는 손'들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95년 1월 27일에 발생한 보물 제1043호 '송광사 16조사 진영'의 도난 사건을 보자. 당시 송광사나 관리 당국은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을 맡은 관련 공무원을 배치했고, 3년 전에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의외상으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럼에도 범인들은 벽을 뚫고 침입해 유취 영정을 훔쳐갔다.

도난 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난방지 경보기는 설치 당시부터 알람을 부리다가 도난 당시에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그



95년 1월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진영중 8대 자각도 영 조사의 진영

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허술한 관리의 책임이 문화재 관리 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계의 성보문화재 관리도 문제가 있다.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아직 전국사찰에 산재해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재 관리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불교 문화재 조사 예산 배정 등으로 불교계의 지구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어렵게 개정 절차를 밟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하루 빨리 시행해, 문화재 절도, 도굴, 매매 등 문화재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난 늘고 처벌 솥방망이

불교계의 각 종단도 성보 관리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지키는 일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미 있어 버린 문화재를 찾는 일도 미룰 수 없다. 때문에 현대불교 신문사는 2001년 한 해 동안 도난문화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경찰청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종욱 기자

경주 남산 불상 88기 디지털 입체 도면화

컴퓨터 3D 레이저 스캐닝

코나 얼굴, 손 등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불상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을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 남산의 불상 유적을 레이저 카메라로 촬영한 뒤 디지털 화상으로 저장해 복원 자료로 활용하는 첨단 실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만)는 컴퓨터를 이용한 3D 레이저 스캐닝 작업으로 경주 남산의 불상 88기의 형상을 디지털 도면화하는 정밀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 측정기술을 응용한 이 작업은 카메라에서 레이저빔을 쏘아 광선이 유적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컴퓨터로 계산해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고선 작업으로 불상의 명암과 굴곡을 표현한다. 손으로 스케치하던 기존 평면도와는 달리 불상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 또 4면에서 모두 촬영한 후 컴퓨터상에서 조합하면 어느 각도에서의 도상도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다.

99년부터 이 작업을 위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이윤석 화예연구사는 '레이저 정밀카메라를 들고 일일이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상의 미세한 특징까지 잡아내 원형을 실려낼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삼릉계곡 등지의 불상 31기를 디지털 화상으로 저장해 놓았고 올해는 3월부터 탐곡 불상 등 35기의 도면화 작업을 시작한다. 동시에 덕부 분이 훼손된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66호)의 복원모형 제작을 추진한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선재동자 구법행 본받게 하소서”

의천 스님의 입승구법

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의천(義天)의 송 구법은 송 황제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송 거랑과의 관계때문에 고려 조정에서의 입승 허락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한 달간의 밀항도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의천이 밀주 지사에게 보낸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물레 고국을 떠나 바다에 몸을 띄웠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푸르른 물결만 보였으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바다에 배만이 있었다”.

진수정원 법사의 초청

의천은 현수의 교관으로부터 대 소송의 경을론과 장소에 이르러까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일찍부터 송나라로 가서 도를 구할 뜻을 갖고 있었다. 당시 유명한 화엄학승인 진수정원 법사로부터 초청을 받자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의천은 여러 번 입승 구법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확고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고려는 송의 연호를 쓰지 않고 거란의 연호를 쓰고 있었으니, 고려와 송나라는 거란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모소 일백성을 두루 들며 스승을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본받게 하소서”라고 발원하고 있다. 그러한 의천의 구법행을 상국사(相國寺)의 종본(宗本)은 “그 누가 만리의 큰 물결 위에 몸을 위해 몸을 잊고 선재동자 본받라. 염부단급 얻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인데 우담발화가 불 속 에 피었네” 라고 찬탄하였다.

의천이 선재동자가 스승을 찾아 구법 순례의 길을 걸어간 그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배를 타고 와서 머물렀던 판교진에서 의천을 기리며 기념제막식을 갖고, 이어서 한국성(韓國城)을 짓는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한중 교류증진을 위해 교주시에서는 유적지 부근에 한국교민들을 위한 한국성을 짓고 있다. 교주에는 40여 개 국가에서 300여 개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



의천 스님이 건너와 상륙했던 교주만(판교진) 전경

180여 개 업체가 한국기업이라고 한다.

한국성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남 우리를 만천에 초대한 중국국제사회 교주상회의 재진산 회장은 한국성의 부지가 62546 평방미터에 건평이 62000 평방미터라고 설명했다. 한국성은 상업구역과 주택구역으로 나뉘어 건설되는데 이미 2개월 전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2001년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을 생각해 보게 했다. 한국성은 신라방의 재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성’ 연말 완공 예정

한국성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다시 교주 호텔에 가서 점심을 대접받고는 새로운 여정에 올랐다. 교주시에서는 우리 일행이 교주시를 벗어날 때까지 경찰차로 호위해 주었다. 대각 의천이 송왕이 보내 준 안내원의 호위를 받고 변방을 향해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장보고가 활약한 무대며, 신라방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직산의 법화원을 향해 달렸다.

“무구정광다라니경 751년 제작”

문화재연구원 박상국 실장 주장

‘702년 낙양인쇄설’ 반박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다라니경(국보 제126호)’.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이래 간행시기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어 석가탑이 세워진 751년 이전이라는 것 외에는 702년 설, 704년 설, 706년 설 등 아직도 제작년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실장은 최근 문화재 전문학술지 <문화재 33호>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무구정광다라니경은 704년 중국에서 한역되어 신라로 들어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다라니경은 751년 석가탑 건립을 계기로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논란이 되고 있는

“무구정광다라니경은 701년에 한역되어 702년 중국 낙양(洛陽)에서 인쇄한 것”이라는 중국 학자 반길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751년 간행설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704년 한문으로 번역됐다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이다.

박 실장은 불경 번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원석교록>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구정광다라니경이 704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축적무후 집권기에 사용된 연호인 ‘천후(天祐) 말년’에 역경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 702년 제작설은 ‘천후 말년’을 축적무후가 집권(684~704년) ‘말기’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경주 황룡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명문 등으로 미뤄볼 때 다라니경은 706년 경 신라에 들어와 이후 조탑(造塔) 공양용으로 널리 쓰였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문화재단신

부여 왕흥사지 사적지정

백제시대에 창건된 충남 부여 왕흥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강원도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제426호) 충남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제428호)을 사적으로 지정했다.

충남 문화유적 분포지도

충청남도 태안군과 서천군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나왔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안군 편>과 <서천군 편>에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실려 있다. 이 두 책자에는 총 5천 분의 1 지도에 유적의 위치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문화재 관리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학술단신

가산불교대사림 3권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모두 15권으로 완성될 ‘불교 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의 3번째 권을 최근 내었다. 4·6배 판 1095쪽으로 된 3권은 ‘나쁜’에서 ‘당 망 權綱’까지 5191항목을 담았다. ‘당면-마마계보살’까지 7800여 항목을 실은 4권도 곧 나올 예정이다.

해인사 박물관 학예사 모집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학예연구사를 뽑는다. 대상은 4년제 대학에서 미술학, 미술사학,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남자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40세 이하, 박물관 근무 경험 3년 이상인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접수는 22일까지. (055)931-100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해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세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신식콩 금檀花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콩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콩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檀花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를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신식 감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비싼 효과를 보여요”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0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함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檀花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초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장을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분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 승용차 운행: 전학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031) 315-5429
 대표전화: (02) 522-5121
 핸드폰: (018) 277-5592

한국문화의 정확한 이해
韓國文化教養大學院
 제1기 수강생 모집 (3년 야간)

- 우리民族文化의 根幹인 佛敎와 東洋思想·老莊·哲學·科學·宇宙와 人生·生命思想 등의 精確한 理解를 알자!
- 오늘날 社會의 倫理·道德이 없다고 외치지 말자! 修身·倫理·道德敎育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인가?
- 韓國의 知識人들이여! 이케라도 子女와 社會敎育의 부리를 찾자!

■ 개강: 2001. 03. 03(토) (금, 토 강의)
 ■ 수업: (금) 18:30 - 20:00. 佛敎, 海심밀경, 장자, 生命思想 (토) 18:30 - 20:00. 佛敎, 哲學, 科學, 物理學, 宇宙와 人生
 ■ 참선: (토) 17:30 - 18:30. 禪의 原理와 修行
 ■ 수업료: 1학기 380,000원(통신 40,000원 추가)
 ■ 서류: 수강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각1부
 ■ 안내: 02-765-3571

목역산선우회
한국문화교양대학원
 100-272 서울 중구 필동 2가 84-1 총정사
 전철 충무로역 남산골 02)765-3571, 02)923-4162

『스님을 찾습니다』

5~6년전 경기도 오산 세교동 「세마사」에서 정중 스님을 친견했던 거사입니다.

스님, 꼭 만나보고 싶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375-7063